

김사복, 5·18구묘역 힌츠페터 옆에 묻힌다

안장 T/F팀, 이장 승인...40년만에 재회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고(故) 김사복씨와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가 광주에서 40년 만에 재회한다.

23일 김사복씨의 아들 승필씨와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사복씨에 대해 광주시와 5월 단체·시민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5·18 구묘역 안장 T/F팀'이 심의를 열어 안장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승필씨는 경기도 양주시 청량리성당 묘지에 묻힌 아버지 김사복씨의 유해를 화장해 구묘역에 있는 힌츠페터 기념정원으로 이장할 계획이다.

이장 시기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념정원 조성 3주년을 맞는 5월 16일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6년 만들어진 힌츠페터 기념정

원에는 힌츠페터가 2005년 광주 방문 당시 5·18기념재단에 맡겨뒀던 손톱과 머리칼이 무등산 분청사기함에 담겨 안장돼 있다.

1980년 독일 제1공영방송 ARD-NDR의 일본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힌츠페터는 5·18이 일어나자, 5월20~21일, 23일 두차례 김사복씨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와 신군부의 만행을 현장에서 취재해 가장 먼저 세계에 알렸다.

힌츠페터는 지난 2003년 제2회 송건호 언론상을 받으며 "용감한 택시기사 김사복씨에게 감사하다.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사복씨는 간암에 걸려 5·18이 일어나지 4년6개월 만인 지난 1984년 12월19일 향년 54세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75년 김사복(오른쪽)씨와 위르겐 힌츠페터가 경기도 포천 장준하 선생 의문사 현장 답사 때 찍은 사진. <광주일보 자료사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난 김사복씨는 1980년 당시 서울에서 파레스호텔 소속 외국인 전용 택시를 운영했다. 일본어와 영어가 능통해 외신기자들을 주로 김사복씨의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힌츠페터는 1975년 장준하 선생 의문사 현장 답사 때 함께 찍은 사진이 공

개되며 5·18 이전부터 인연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승필씨에 따르면 김사복씨는 광주를 다녀온 후 심한 트라우마를 겪던 중 간암 투병을 시작했다.

5·18기념재단은 두 고인(故人)을 할 곳에 모시기 위해 지난 18일 구묘역 안장 심의를 요청해 승인 받았다.

승필씨는 "영화를 통해 아버지와 힌츠페터의 인연이 소개된 이후 늦었지만 두분을 꼭 할 곳에 모시고 싶었다"며 "이번 일이 성사되기까지 관심을 보내준 광주시민과 5월 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 '택시운전사'는 배우 송강호가 김사복씨 역할을 맡은 김만섭 역을, 토마스 크레취만이 힌츠페터 역을 맡았으며, 관객 1218만 9195명을 동원하며 역대 영화 관객수 11위에 올랐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광주시 서광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과 관계자들을 초대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숙 여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靑 초청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소록도 분교 학생 등을 차례로 청와대로 초청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23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여사는 우선 지난 20일 광주시에 위치한 서광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교사들을 초대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에도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참석차 광주에 들렀을 때 이 아동센터를 찾아 아이들에게 뜨개실을 선물했고, 아이들은 이 뜨개실로 문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한 목도리를 떠 이번 초청에서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

아이들은 또 문 대통령의 반려견인 '마루',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계 '곰이', '송강', 그리고 '곰이'가 낳은 강아지들을 위한 목도리도 선물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은 '곰이'와 '송강'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그래서 김 위원장과 화해했어?" "통일은 언제 돼요?" 등의 질문을 던졌고, 김 여사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과 북이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지지해 주실 거죠"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21일에는 지난 10월25일 소록도 방문 당시 인연을 맺은 녹동초등학교 소록도분교·시산분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소록도 성당 및 소록도 병원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차담회를 했다. 김 여사는 "소록도는 제게 늘 마음의 빛이 되어 주었다. 소록도교가 서로를 연결해 주는 다리였듯 우리도 그런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했고, 소록도성당의 김연준 주임신부는 "작은 자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덕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화답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영광 불갑산 도립공원 됐다

신규 지정안 가결

영광 불갑산이 내년부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다.

전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불갑산 도립공원 신규 지정(안)'을 9명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중앙부처인 환경부·산림청·국토교통부 협의도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 도립공원으로 공식 지정·고시 될 예정이다.

전남에는 조계산·두륜산·천관산과 무안·신안·별교 갯벌 등 현재 6개 도립공원 28만9787㎢가 지정돼 있으며, 불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7번째가 된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며, 탐방로 등 편의시설 설치와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할 수 있다.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대상지는 전남 영광군 불갑면, 묘량면 일원으로 면적은 6.89㎢이다.

국·공유지가 0.24㎢(3.4%), 사유지가 6.65㎢(96.6%) 포함돼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인사 청탁·비리 사라질까

이용섭 시장 '희망인사시스템' 오픈...3일만에 31명 핫라인 신청

광주시가 지난 21일 '희망인사시스템'을 공식 오픈하면서 그동안 승진, 전보 등 인사를 두고 벌어지던 각종 청탁과 소모적인 경쟁, 비리 등의 부작용이 사라질 수 있는 지 주목받고 있다. 시 본청 직원이 일하고 싶은 부서 1~3순위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승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자신의 장점과 업무 성과를 직접 어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시스템의 핵심이다.

이용섭(사진) 광주시장은 취임과 함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의 구축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민선 7기 인수위에 해당하는 혁신위원회도 정실·측근 인사사 청탁인사는 철저히 배격하는 인사 혁신을 위해 희망인사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한 지 3일만에 31명이



희망인사로 이 시장에 인사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으며, 12명이 자신이 일하고 싶은 부서 1~3순위를 기입했다. 핫라인은 400자 이내에서 자신의 업무 성과, 장점 등을 쓰고 문서를 첨부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이 시장만 열람할 수 있다.

이 시장이 이번 인사에서 핫라인과 근무평정을 토대로 승진 인사를 단행하기로 해 핫라인의 접속자는 크게 늘 전망이다. 희망인사시스템 이용 대상자는 소망직, 파견직을 제외한 2162명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자신이 왜 승진해야 하는지를 400자 정도로 담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를 전부 읽어야 하는 인사권자의 고

충도 감안해 분량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일하고 싶은 부서 1~3순위 기입은 우선 5급 이상만 가능하고 6급 이하는 오는 27일부터 할 수 있다. 시는 24일자 부이사관급 전보인사를 시작으로 1월 첫째주 4급 이상 전보인사를 거쳐 1월 중순까지 인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쓰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희망인사시스템을 개통했다"며 "인사권자에게 자기 뜻을 직접 알릴 수 있도록 인사청탁의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해야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를 사랑하고, 자기 업무에 자긍심을 갖고, 이를 토대로 자기 업무에 열정을 쏟기 때문"이라며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희망부서를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원주민 인권 강화

주거약자 문제 고려·사전협의체 명문화...자치구에 통보

앞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는 강제 퇴거나 퇴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사라지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광주시는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비사업 인권기준 강화대책'을 마련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제화와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시 노후수준과 같은 물리적 요소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는 한편 사

전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고 구청장 협의체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 현재 13곳으로 파악되는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 집행 시에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키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협의조정단계'에선 '사전협의체' 제도를 명문화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라도 박한 평가 뒤집은 택리지 필사본 발견

"전라도의 풍속을 두고 세상에서는 속이고 경박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중략) 예로부터 절의를 지킨 선비가 많기 때문에 그 풍속이 또 호형하고 기개를 숭상한다."

조선 후기 지리지인 이종환의 '택리지'에 독창적인 관점과 해석을 가미한 책이 출간됐다. 특히 향촌의 지식인이 전라도를 비롯한 여타 지역에 대한 기존의 박한 평가를 뒤집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는 "다산 정약용

이 강진 유배 시절 가르친 제자인 황상이 재편집하고 증보한 택리지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청담(淸潭) 이종환(1690-1756)이 1751년 펴낸 '택리지'는 저자가 남긴 마지막 수정본이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본만 해도 200여 종이 넘을 만큼 인기가 많다. 안 교수가 학술지 '한국문화'에 투고한 논문에 따르면 치원 황상(1788-1863)이 필사한 '택리지'는 개인이 소장한 치원총서의 일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투자자 모집 ★

- 3억원 이상
- 경매 입찰/낙찰 물건
- 최하 연15% 수익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단독심

※ 전남, 북지역/지분환영 ※

바로잡니다.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38평, 사무실 전용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능
- 시세 - 1억1000만원
- 매매 - 7100만원
- 현재 보500만원 월60만원 임대중

문의. 010-6834-7400

광주광역시 인구조번복지지원회 광주전남지회

'돈돈'육아 성공비법

함께하면 돈돈 육아 성공비법

직장은치문화 제로법

직장할 때 대대적 놀이 주는 대신 배려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육아대디 지지법

아빠들의 육아에 힘써 격려 응원하기!

슈퍼맘 방지법

육아를 도와주는 아이에서 방해 하는 아이로 만들기!

육아호수 주의법

서로 육아에 호수 대신 핏줄자 따듯한 한마디 건네기!

육아대디 지지법

아빠들의 육아에 힘써 격려 응원하기!

돈돈육아 동참법

돈돈 육아: 아이 안전, 기쁨, 나무꾼의 작은 자두만 골라먹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좋은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화순읍 이십리리 대지 860㎡ 광주에서 10분 2억7천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별장형주택 남평읍 수원리 대지 403㎡ 주택 143㎡ 2억6천
- 장성 남면 덕성리 주거지 588㎡ 광주인근 교통좋은 1억8500
- 강진군 드림팜관광농업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사할·빌라·다세대 적합 1억5백
- 무안 해제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매도 1억 조정가능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땅 4413㎡ 은행 2억4천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수익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용봉동 고시텔 시설완비 대지 357㎡ 건평 830㎡ 45실 은행5억 가격은 상당
- 장성을 의원건물 대지 340㎡ 건물 489㎡ 은행2억 임대중임 3억5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팬션 소천만 대대동 땅 332㎡ 룠 8개와 관리실 은행 3억 영업잠실 3억천
- 아파트 부지 담양 고서면 63530㎡ 평당 70(130억)
- 완도읍 새모델 땅 959㎡ 45실 2393㎡ 은행 17억 감정 30억 매도 2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